하고 싶을때 해야 진짜 공부

선지식을 찾아서 법정

소용없어. 풍선에 바람을 넣으려면 입에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참선도 바람을 불어넣는 정신이 있어야 공부를 이룰 수 있어. 정성을 다해서 바람을 불다 보면 풍선이 빵빵해지다 터지지. 풍선을 부풀리는 방법을 알아야 해."

"풍선은 왜 부풀릴까? 터뜨리려고?" 순간 객이 망상을 피운다. 법정 스님은 어찌 알았는지 딱 잘라 말한다. "참선의 최종목적은 견성성불이야."

스님은 참선을 주로 해온 까닭에 대구 동화사 등 강원도 여러 곳 다녔지만 경전에 대한 집착은 없다. "경전은 공부를 하다 답답하거나, 선지식을 찾아가기 어려울 때만 짬짬이 참고했어."

"부처님을 비롯해 예수 · 공자 등 모두 사는 길을 알려줬어. 스님은 부처님 흉내를 잘 내고, 재가자는 재가자다운 흉내 내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산다는 것이 평생 남 하는 일 따라하는 것 아니야? 옛조상들이 하던 것을 몇 겹 두고 반복할 뿐이야. 한발 더 나가 불교는 이 윤회를 벗어나 생사초월을 한다는 것이 다르지만."

스님은 "사람 몸 받기 힘들다(人身難得). 윤회고를 벗어나려면 야무지게 공부해 생사를 타파해야 한다"며 선수행을 강조했다.

"생사초월까지 언급 않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수단으로는 참선만한 것이 없어. 하지만 참선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법정 스님은 "참선은 너와 나의 분별을 떠나, 산하대지 삼라만상 등 일체와 합일하는 것으로 인연법을 알아야 자비심도 나온다"며 "참선은 나로 인해 모든 이가 있는 연기(緣起)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이 못미더웠을까? 스님은 "인연은 때 되면 꽃이 피듯,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하지 않고 스스로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길 중에는 부처의 길, 중생의 길이 있어. 순간 발 들이는 것에 따라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지.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도 달렸어. 이 순간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스님은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등 세상이 험악해진 것은 노력해서 얻기보다 쉽게 얻으려는 데서 악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인내와 화합을 강조했다.

"현재 정국이 어수선한 것도 화합하지 못해서야.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지. 상대를 이해하면 아상(我相)은 저절로 사라지고 자기희생의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

수좌인 법정 스님의 인연처답게 향천사에는 천불선원(千佛禪院)이 있다. 규모도 작고 사중살림이 어려운 탓에 이번 동안거에는 일곱 분 스님만이 안거를 지냈다. 수덕사 주지 시절 '화합'과 '자율'을 강조했던 법정 스님의 리더십은 천불선원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선원 대중스님들에게 입승스님 위주로 자율정진을 하자고 했지. 천불선원은 최소한의 수행만 강제고 나머지는 자유야. 용맹정진도 없어."

환희심을 위해, 수행의 맛을 보기 위해 용맹정진 하라던 스님이 정작 천불선원 운영에는 왜 이리 여유로울까?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해야 진짜 공부야. 바보도 하루 종일 바보는 아니잖아? 잠깐 제 정신 들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돼. 시간 많이 짜서 앉아있게만 한다고 공부가 돼나? 10시간 앉아있어 봐야 풍선 입에 물고만 있는 것과 같아. 참선 하려면 1시간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용을 쓰고 화두에 매달려야 진척이 있어. 그게 바로 입에 문 풍선을 빵빵하게 부는 거야."

법정 스님이 다시 차를 권했다. 스님과 차를 마신 객의 배도 부푼 풍선이 됐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3〉 해원 황의돈 박사

황의돈 선생은 한국 초대 여판사 황윤석씨의 아버지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태어나 네 살(1894) 때부터 할아버지 태현에게 한학을 공부하고, 17세부터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 침략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그 복권을 위해 동명학교를 창설하고 국사교육을 통해 애국사상을 고취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므로 중국으로 망명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승훈 · 안창호 등과 함께 YMCA에서 국사 강의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 휘문의숙 교직까지 파면 당했다. 보성고등학교 교사직을 끝으로 조선일보 고적조사를 담당했다가 52세에 불교에 귀의해 오대산 방한암 스님에게 선(禪) 지도를 받았다.

고적답사를 해서 그런지 어느 지역 문제가 나오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인구는 총 몇 명이었고 남자는 몇, 여자는 몇 명이었으며, 어느 곳에 동네 우물이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었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하여,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 꿰뚫으면 비로서 알게 될 것이다"하는 식으로 선문답을 자주 하였다.

조그마한 키에 의기가 양양하여 서양식 잰틀맨쉽을 가진 동양사 전공 조좌호 선생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주신 김용배 교수의 동서문화비교론과 원해 박사님의 인생관(주체적, 명예적, 영적인 인생관)을 원고로 만들어 항상 외우고 다녔으며, 어디서 무슨 법문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외워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저술하신 <대동청사>와 <조선신사>를 통째로 외우고 계셨고, 서화담 · 목은전 · 안중근 · 손병희 ·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완전히 시간을 잊어 버렸다. 너무나 황홀하여 박사님께서 지은 삼각산 절에 가 하룻밤씩 자고 철야정진을 하기도 했는데, 법당을 솔밭 속에 지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한번 앉으면 두 시간, 세 시간을 꼼짝 달싹 하지 않았으며, 일어나실 때는 다리를 주물거나 팔 운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딸 윤석이 여성운동을 하다가 단명하게 죽은 것을 매우 슬퍼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 '윤석장학회'를 만들었을 때는 거금을 내놓아 죽은 딸을 위로하였다.

아들 황석영씨도 유능한 판사였는데, 내가 서대문형무소 모 사형수를 위해 연판장을 돌리러 갔을 때는 손수 4,50명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날인을 받아 주었다.

황의돈 박사님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둥글납작한 얼굴에 머리는 시원하게 벗겨졌고, 검은 태 안경 밑으로 팔자 수염을 길러 매우 인상적이었다.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음성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소리를 하여 매우 선동적이었다.

"나는 이 음성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두들겨 맞았어. 안주, 가산, 정주 등에서 국사교육을 할 때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죽창을 들고 나설 정도였고,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중학에서는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켜 나도 죽을 뻔 하였거든.

그래도 목숨을 바쳐 국사 강의를 하였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 살 수 있겠어.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고향에 있을 때는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마침 방한암 스님을 만나 뵙고 나니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무엇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동양 사람들은 농사짓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약육강식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100년 동안은 역세혁명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두고 봐.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서양이 동양되고 동양이 서양이 될 것이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동서가 한 통속이 되지. 유럽 사람들이 천년 동안 전쟁하다가 바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인권운동을 일으킨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깨달아야 해.

요즈음 청년들은 명예 · 사랑이면 정조까지도 다 버려 버린다니까. 일본놈들은 그것을 알고 화투에 광을 만들어 조선 땅을 통채로 먹어버린 것 아니어.

보라고 내가 거짓말인가. 12월 비를 보면 일본 하오리를 입은 사람이 우산을 받고 나오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광 나와라. 광 나와라' 하니 그놈들이 안 나오고 배기겠어. 광이 무엇이야. 일본 국기 아니야. 그런 줄이나 알고 화투들 치라고."

입에서 하얀 거품이 진을 칠 때까지 열변을 토하셨다.

전통 유교 집안서 태어나 할아버지께 한학 공부
52세에 불교 귀의, 방한암 스님께 禪 지도받아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